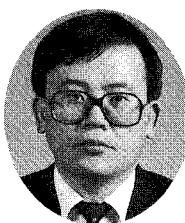


하천 모델의 원리와 활용방법

〈2〉



朴錫淳

(강원대학교 자연대 환경학과 부교수)

목차

I. 서론

1.1 STREAM모델 연구 배경

1.2 STRESS모델 연구 배경

1.3 모델 개요

II. 모델 원리

2.1 반응조 나열법

2.2 STREAM모델식

2.3 STRESS모델식

III. 수질인자 반응 및 상호관계

3.1 분변성 세균

3.2 비보존성물질

3.3 보존성 물질

3.4 질소 화합물

3.5 인화합물

3.6 염류소 a

3.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8 용존산소

3.8.1 보에 의한 재포기

3.8.2 재포기 계수

3.9 무작위 수질 반응식

IV. 입력 파일 구성

4.1 하천의 구조화

4.2 결정 모델 입력 파일 작성

4.3 실측 데이터 파일 작성

4.4 확률 모델 입력 파일 작성

4.4.1 기초 입력 파일

4.4.2 확률 입력 파일

V. 수행 절차

5.1 STREAM모델

5.1.1 프로그램 개요

5.1.2 수행과정

5.2 STRESS모델

5.2.1 프로그램 개요

5.2.2 수행과정

VI. 참고문헌

II. 수질인자 반응 및 상호관계

모델에 포함된 주요 수질 인자는 용존산소(Dissolv-

ed Oxygen : DO),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 BOD), 분변성 세균(Fecal Coliform : FC), 질소화합물(유기질소 : Organic Nitrogen ; 암모니아성 질소 : Ammonia Nitrogen; 악질산성 질소 : Nitrite Nitrogen; 질산성 질소 : Nitrate Nitrogen), 인화합물(유기인 : Organic Phosphorus; 무기 용존인 :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부유 조류(Phytoplankton), 침전물 산소요구량(Sediment Oxygen Demand : SOD), 비보존성 물질 3가지(총부유성 고형물질 : Total Suspended Solid, 등), 부착조류(Periphyton) 및 수초(Macrophyte)의 광합성 및 호흡에 의한 DO변화 등이며 QUAL2E에 포함되지 않은 탈질화 과정(Denitrification Process)과 부착조류 및 수초에 의한 용존산소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 수체내에서 수질인자들의 상호작용과 변화 기작은 그림 3.1과 같다.

3.1 분변성 세균(Fecal Coliform)

분변성 세균은 수체에서 식(6)과 같이 사멸 과정에 의해서만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증가되는 요인은 유입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FC_i = \frac{FC_{i-1}}{1 - K_{FD} \cdot \Delta t} \quad \dots \dots \dots (6)$$

여기서,

FC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분변성 세균 농도,

FC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분변성 세균 농도,

K_{FD} : 반응조에서의 분변성 세균 사멸계수, 그리고

Δt : 체류시간이다.

3.2 비보존성 물질(Arbitrary Non-conservative Materials)

비보존성 물질은 수체에서 식(7)과 같이 수질인자와는 관계없이 침전과 사멸에 의해 감소되고 재부유 과정에 의해 증가된다.

$$AN_i = \frac{AN_{i-1} + (K_{AC} / d) \cdot \Delta t}{1 - (K_{AD} + K_{AS}) \cdot \Delta t} \quad \dots \dots \dots (7)$$

여기서,

AN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비보존성 물질 농도,

AN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비보존성 물질 농도,

K_{AC} : 비보존성 물질 용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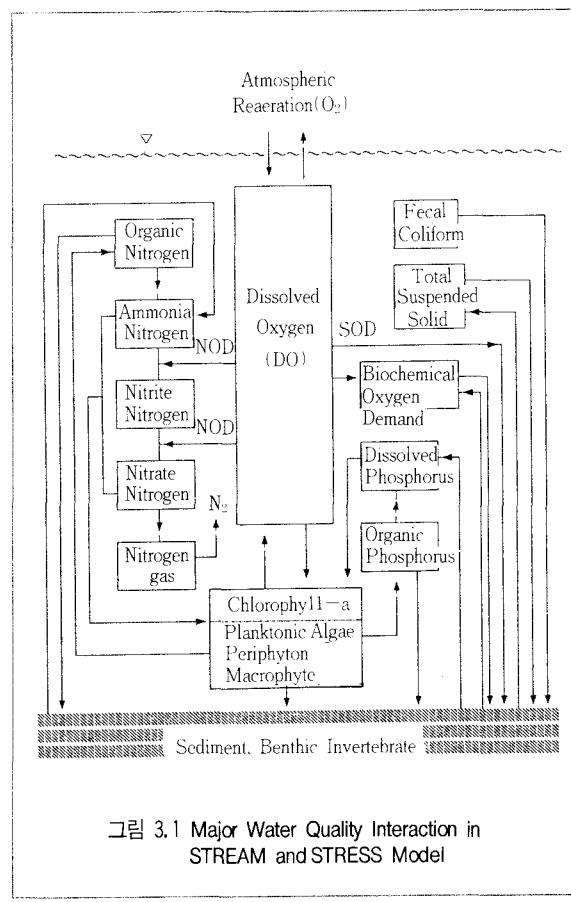


그림 3.1 Major Water Quality Interaction in STREAM and STRESS Model

K_{AD} : 비보존성 물질 사멸계수, 그리고

K_{AS} : 비보존성 물질 침전계수이다.

3.3 보존성 물질(Conservative Materials)

보존성 물질은 수체에서 식(8)과 같이 반응에 의한 농도의 변화가 없고 단지 유입수에 의한 희석 효과에 의해 농도 변화가 결정된다.

$$CN_i = CN_{i-1} \quad \dots \dots \dots (8)$$

여기서,

CN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보존성 물질 농도, 그리고

CN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보존성 물질 농도이다.

3.4 질소 화합물(Nitrogen Series)

질소화합물 중 유기질소는 식(9)에서와 같이 Algae의 사멸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되고 침전과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로 분해 과정에 의해 감소량이 결정된다.

$$ON_i = \frac{ON_{i-1} + (\alpha_1 \cdot \rho \cdot A) \cdot \Delta t}{1 - (\beta_3 + \delta_4) \cdot \Delta t} \quad (9)$$

여기서,

ON_i : i번쨰 반응조에서의 유기질소 농도,

ON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유기질소 농도,

α_1 : Algae에 있는 질소의 분율,

ρ :Algae의 흡수율,

A : Algae의 생체량,

β_3 : 유기질소의 가수분해 상수. 그리고

δ_4 : 유기질소 침전계수이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식(9)에서 결정된 유기질소의 가수분해량과 바닥으로부터 용출되는 량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되며 식(10)에서와 같이 Algae의 성장에 사용되거나 아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에 의해 감소량이 결정된다.

$NH_i =$

$$\frac{NH_{i-1} + (\beta_3 \cdot ON_{i-1} + \delta_3 / d - F_1 \cdot \alpha_1 \cdot \mu \cdot A_{i-1}) \cdot \Delta t}{1 - \beta_2 \cdot \Delta t} \quad (10)$$

여기서,

NH_i : i번쨰 반응조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NH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ON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유기질소 농도,

A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Algae의 생체량,

d : 수심,

δ_3 : 바닥으로부터의 암모니아성 질소 용출속도,

F_1 : Algae의 암모니아 흡수 분율(0-1),

μ : Algae의 최대 성장속도,

α_1 : Algae침전속도, 그리고

β_2 :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 계수이다.

아질산성 질소는 식(10)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량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되며 식(11)에서와 같이 질산성 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에 의해 감소량이 결정된다.

$$N2_i = \frac{N2_{i-1} + (\beta_1 \cdot NH_{i-1}) \cdot \Delta t}{1 - \beta_2 \cdot \Delta t} \quad (11)$$

여기서,

$N2_i$: i번쨰 반응조에서의 아질산성 질소 농도,

$N2_{i-1}$: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아질산성 질소 농도,

NH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그리고

β_1 : 아질산성 질소의 산화 계수이다.

질산성 질소는 식(11)의 아질산성 질소의 산화량과 바닥으로부터의 용출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되며 식(12)에서와 같이 Algae의 성장과정에 의해 감소량이 결정된다.

$$N3_i = \frac{N3_{i-1} + (\beta_2 \cdot N2_{i-1} - (1 - F_1) \alpha_1 \cdot \mu \cdot A_{i-1}) \cdot \Delta t}{1 - \beta_5 \cdot \Delta t} \quad (12)$$

여기서,

$N3_i$: i번쨰 반응조에서의 질산성 질소 농도,

$N3_{i-1}$: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질산성 질소 농도,

$N2_{i-1}$: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아질산성 질소 농도, 그리고

β_5 : 탈질화 계수이다.

3.5 인 화합물(Phosphorus Series)

유기인은 식(13)에서와 같이 Algae의 사멸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되고 침전과 무기인의 형태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감소량이 결정된다.

$$OP_i = \frac{OP_{i-1} + (\alpha_2 \cdot \rho \cdot A_{i-1}) \cdot \Delta t}{1 - (\beta_4 + \delta_5) \cdot \Delta t} \quad (13)$$

여기서,

OP_i : i번쨰 반응조에서의 유기인 농도,

OP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유기인 농도,

A_{i-1} : i-1번쨰 반응조에서의 Algse의 생체량,

F_1 : Algae의 암모니아 흡수 분율(0-1)

α_2 : Algae에 있는 인의 분율,

ρ : Algae의 사멸 속도,

β_4 : 유기인의 산화계수, 그리고

δ_5 : 유기인 침전속도이다.

용존 무기인은 식(14)에서와 같이 침전에 의한 감소량은 없고 Algae의 성장에 소모되는 량에 의해 감소량이 결정되고 바닥으로부터 용출되는 량에 의해 증가

량이 결정된다.

$$SP_i = SP_{i-1} + (OP_{i-1} \cdot \beta_4 + \delta_2 / d - \alpha_2 \cdot \mu \cdot A_{i-1}) \times \Delta t \quad (14)$$

여기서,

SP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무기인 농도,

SP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무기인 농도,

OP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유기인 농도, 그리고

δ_2 : 용존 무기인의 용출속도이다.

3.6 엽록소 a(Chlorophyll a)

일반적으로 수중의 Algae는 무기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의 생물로서 빛 에너지를 근거로 광합성을 수행한다. 따라서 광합성에 관계된 엽록소 a(Chlorophyll a)의 량으로 Algae의 량을 표현할 수 있다. 수중에서의 Algae변화는 성장율, 호흡율 및 침전율에 의해 결정되며 성장율은 빛, 영양염류 등 의 제한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식(15)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CA_i = \frac{\alpha_0 \cdot A_{i-1}}{1 - (\mu + \rho + \delta_1 / d) \cdot \Delta t} \quad (15)$$

여기서,

CA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엽록소 a농도,

A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Algae량, 그리고

α_0 : Algae포함된 엽록소 a의 분율이다.

3.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식(16)에서와 같이 산화, 침전 과정에 의해 감소하고 바닥으로 부터의 재부유에 의해서 증가량이 결정된다.

$$BD_i = \frac{BD_{i-1} + (K_{BC} / d) \cdot \Delta t}{1 - (K_{BD} + K_{BS}) \cdot \Delta t} \quad (16)$$

여기서,

BD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BOD 농도,

BD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BOD 농도,

K_{BC} : BOD용출계수,

K_{BD} : BOD사멸계수, 그리고

K_{BS} : BOD침전계수이다.

3.8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용존산소(DO)는 Algae의 호흡, 유기물 및 부기물의 산화에 관계되어 감소량이 결정되며 광합성과 재포기에 의해 증가량이 결정된다. 용존산소는 수체의 온도에 따라 용존산소 포화량이 다르므로 수체의 온도에 관계한 용존산소 부족량으로 식(17)과 같이 표현된다.

$$DO_i = O_t - \frac{O_t - DO_{i-1} - (AO + SO + NO + PO + BO) \cdot \Delta t}{1 - K_2 \cdot \Delta t} \quad (17)$$

여기서,

DO_i : i번째 반응조에서의 BOD농도,

DO_{i-1} : i-1번째 반응조에서의 BOD농도,

O_t : 온도 t에서의 포화용존산소 농도,

K_2 : 대기로부터의 재포기 계수,

$AO = (\alpha_3 \cdot \mu - \alpha_4 \cdot \rho) \cdot A_{i-1} - \epsilon_1 / d + \epsilon_2 / d$,

$NO = \alpha_5 \cdot \beta_1 \cdot NH_{i-1} - \alpha_6 \cdot \beta_2 \cdot N2_{i-1}$,

$PO = \beta_4 \cdot OP_{i-1}$,

$BO = K_{BD} \cdot BD_{i-1}$, 그리고

$SO = K_{SO} / d$ 이다.

3.8.1 보에 의한 재포기

모델은 보를 넘쳐서 흐르는 수체에 대기로 부터의 재포기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식(18)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D_a - D_b = [1 - \frac{1}{1 + 0.3806abH(1 - 0.098H)(1 + 0.046T)}] D_a \quad (18)$$

여기서

D_a = 보 상류에서의 용존산소 부족량(mg/l),

D_b = 보 하류에서의 용존산소 부족량(mg/l),

T = 온도($^{\circ}$ C),

H = 수체의 낙하 높이(m)

a = 경험적 수질 척도, 그리고

b = 경험적 재포기 계수이다.

3.8.2 재포기 계수

모델은 수체가 유하하는 동안 대기로 부터의 재포기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K_2 옵션 1 : Churchill, Elmore & Buckingham
 $K_2 = 2.31 \times 5.026 \times (u / 0.3048)^{0.969} \times (d / 0.3048)^{-1}$

여기서,
 K_2 : 20°C에서의 재포기 계수(Day⁻¹),
 T : 수온(°C),

u : 유속(m/sec),

d : 수심(m), 그리고

K_2 옵션 2 : O'connor & Dobbins

$$K_2 = \frac{(1.91 \times 10^3 \times 1.037^T \times u / 0.3048)^{0.5}}{(d / 0.3048)^{1.5}}$$

K_2 옵션 3 : Owens et al

$$K_2 = 2.31 \times 9.39999 \times (u / 0.3048)^{0.67} \times (d / 0.3048)^{-1.85}$$

K_2 옵션 4 : Langbien & Durum

$$K_2 = 2.31 \times 3.3 \times (u / 0.3048) \times (d / 0.3048)^{-1.33}$$

K_2 옵션 5 : Tsivoglou & Wallace

$$C = \frac{Q}{0.3048^3}$$

IF $C > 15$ THEN $C = 0.054$

IF $C < 15$ THEN $C = 0.110$

$$K_2 = C \times \left[\frac{(u / 0.3048)^2 \times M^2}{1.49^2 \times (d / 0.3048)^{(4/3)}} \right]$$

$$\times (u / 0.3048) \times 86400$$

여기서,

Q : 유량(m³/sec), 그리고

M : Manning계수이다.

(주)각 옵션에 의해 결정된 재포기 계수값은 다음과 같이 온도에 따라 보정된다.

$$K_2^T = K_2 \times \theta^{(T-20)}$$

여기서,

K_2 : 20°C에서의 재포기 계수(day⁻¹)

K_2^T : T°C에서의 재포기 계수(day⁻¹),

T : 수온(°C), 그리고

θ : 온도 보정 계수이다.

3.9 무작위 수질 반응식

STRESS모델에 포함된 수질항목과 상호관계는 3.1에서 3.8까지 제시된 STREAM모델과 동일하며 이를 반응기작에 무작위 체류시간을 적용하여 무작위 반응기작을 유도하였다. STRESS모델에 내재된 무작위 수질 반응식은 표 3.1과 같다.

표 3.1 Model Equations in STRESS

Parameter	Equation
FC _i	$FC_{i-1} / [1 - K_{FD} \cdot (R_n \cdot \sigma + M)]$
AN _i	$[AN_{i-1} + (K_{AC} / d) \cdot (R_n \cdot \sigma + M)] / [1 - (K_{AD} + K_{AS}) \cdot (R_n \cdot \sigma + M)]$
CN _i	CN_{i-1}
ON _i	$[ON_{i-1} + (\alpha_1 \cdot \rho \cdot A) \cdot (R_n \cdot \sigma + M)] / [1 - (\beta_3 + \delta_1) \cdot (R_n \cdot \sigma + M)]$
NH _i	$[NH_{i-1} + (\beta_3 \cdot ON_{i-1} + \delta_3 / d - F_1 \cdot \alpha_1 \cdot \mu \cdot A_{i-1}) \times (R_n \cdot \sigma + M)] / [1 - \beta_1 \cdot (R_n \cdot \sigma + M)]$
N2 _i	$[N2_{i-1} + \beta_1 \cdot NH_{i-1} \cdot (R_n \cdot \sigma + M)] / [1 - \beta_2 \cdot (R_n \cdot \sigma + M)]$
N3 _i	$[N3_{i-1} + (\beta_2 \cdot N2_{i-1} - (1 - F_1) \alpha_1 \cdot \mu \cdot A_{i-1}) \times (R_n \cdot \sigma + M)] / [1 - \beta_5 \cdot (R_n \cdot \sigma + M)]$
OP _i	$[OP_{i-1} + (\alpha_2 \cdot \rho \cdot A_{i-1}) \cdot (R_n \cdot \sigma + M)] / [1 - (\beta_4 + \delta_5) \cdot (R_n \cdot \sigma + M)]$
SP _i	$SP_{i-1} + (OP_{i-1} \cdot \beta_1 + \delta_2 / d - \alpha_2 \cdot \mu \cdot A_{i-1}) \times (R_n \cdot \sigma + M)$
CA _i	$\alpha_0 \cdot A_{i-1} / [1 - (\mu + \rho + \delta_1 / d) \cdot (R_n \cdot \sigma + M)]$
BD _i	$[BD_{i-1} + (K_{BC} / d) \cdot (R_n \cdot \sigma + M)] / [1 - (K_{BD} + K_{BS}) \cdot (R_n \cdot \sigma + M)]$
DO _i	$O_t - [O_t - DO_{i-1} - (\alpha_3 \cdot \mu - \alpha_4 \cdot \rho) \cdot A_{i-1} - \epsilon_1 / d + \epsilon_2 / d + K_{SO} / d + K_{BD} \cdot BD_{i-1} + \beta_4 \cdot OP_{i-1} + \alpha_5 \cdot \beta_1 \cdot NH_{i-1} - \alpha_6 \cdot \beta_2 \cdot N2_{i-1} \times (R_n \cdot \sigma + M)] / [1 - K_2 \cdot (R_n \cdot \sigma + M)]$

낭비하면 공해물질 회수하면 유용자원